‘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비전 달성 박차

전북도, 16대 핵심과제 성과지표 달성 상반기 점검회의 개최… 성과창출 본격화

총 129개 성과지표 중 정상추진 111개 · 시기 미도래 5건 등은 하반기 달성 목표로

‘전북도는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육성을 위해 16대 핵심과제별 주관부서와 함께 ‘비전 달성을 위한 상반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2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6대 전략과 1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비전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 연도별 로드맵에 기반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6대 핵심과제별 주관부서를 선정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6개 핵심과제별 각 주관부서에서 129개 세부 성과지표에 대해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29개 세부 성과지표별 점검결과는 성과를 달성했거나 정상추진 중인 지표 111건, 시기 미도래 지표 5건 등으로 확인됐다.

6대 전략별 세부과제별로 보면 청년창업 1번지 조성 11개 성과지표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29ha(신규 5ha) 조성’ 등 10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며, 시기 미도래 1개 과제인 ‘맞춤형 작물교육(과채류)’은 9월에 추진 예정이다.

수요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견인 28개 성과지표는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56개사(신규 30개사)’ 등 23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으로, 미흡 5개 과제(특화품목의 6차 산업화, 제조업체 실태조사, 진류농약 안전성 검사, 생산유통통합조직 매출액, 농식품 수출액)는 하반기 중점 추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15개 성과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연구용역 추진’ 등 12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고, 미흡한 3개 과제(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절차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27개 성과지표는 ‘시설원예 ICT 850ha(신규 108ha) 조성’ 등 23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으로, 시기 미도래 2개 과제(저탄소 인증농가 · 인증면적 확대) 및 미흡 2개 과제(승마대회 개최, 곤충 거점단지 조성)는 하반기 적극 홍보 등을 통해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다.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18개 성과지표는 ‘농촌인력중계센터 33개소 운영(신규 4개소)’ 등 18개 과제 모두가 정상추진 중으로, 하반기에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농촌 조성 30개 성과지표는 ‘농촌협약 7개 시군(신규 2개 시군)’ 등 25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며, 시기 미도래 2개 과제(귀농귀촌인 유치 · 만족도) 및 미흡 3개 과제(디지털 트윈 구축, 빈집정비, 농촌관광 방문객)는 하반기 중점 추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6차산업 육성 성과지표에 매출액 추가 등 투입 관련 7개 성과지표를 산출 관련 성과지표로 보완했고, 2회 추경 시 예산 증액을 통해 청년창업농 육성 722명(기존 634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500명(기존 2,300명) 등 4개 과제의 성과지표 목표를 상향했다.

향후에도 도는 하반기 점검을 통해 산출 관련 성과지표를 2024년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달성율 100% 성과지표 중 소극적인 성과지표를 적극적인 성과지표로 바꾸고 관련 투입예산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점 추진을 통해 성과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런 노력들을 통해 전라북도가 가장 잘하는 분야인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전북도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유지에 수소충전소 구축한다

도-김제시-캠코, 국유지 활용 수소충전소 사업 추진 실무회의

향후 14개 시 · 군에 각 1개소 이상 거점형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

전북도는 국유지를 활용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김제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도에서는 14개 시 · 군에 각 1개소 이상 거점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각종 입지규제와 대규모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 · 운영하는 실무협의체는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김제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 김제시, 캠코의 담당 부서장 등이 매월 1회 이상 모여 실무적인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첫 번째 실무회의에서는 기관별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시 현장에서 발생 되는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적극 논의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국유지가 확정되면 후속으로 진행해야 하는 대부계약 사항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국유지 활용 수소충전소 구축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각 기관별 기존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는 김제시뿐만 아니라 도내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캠코와 협의해 적합한 국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민간기업에서도 수소충전소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국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인프라를 확충해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수소충전소는 최근 준공된 부안 곰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현재 10개소가 운영중이고, 8개소를 구축중에 있으며, 향후 버스 차고지와 국유지 등을 활용해 수소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은행,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후원금 2억원 기탁

220여명 자립준비 청년에 총 5개사업으로 지원 예정

김 지사 “도 에서도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 시행할 것”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후원금 기탁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심경식 전북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도청지점장, 전숙영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장,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내 자립준비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2억원이 전북도에 기탁됐다.

전북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심경식 전북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도청지점장, 전숙영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장,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후원금 기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에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으로, 도내 자립준비청년은 69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기탁금은 자립준비청년 220여명에게 총 5개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장학금 지원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취약계층아동에게 1:1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봉사와 일자리를 경험하게 하는 사업이다.

또한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경제교육, 전북은행 임직원과 함께하는 멘토링사업도 진행된다.

전북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 16일 제정 공포하고, 앞으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지원 계획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는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자립준비청들이 사회에 좀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 손잡고 응원해 나가겠다”며, “도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도내 지역사회 기관들의 지원과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2년도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한화제약의 학습비 지원, 새만금개발공사의 장학금 지원, 대한적십자사회의 식료품 지원 등 2억5,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위한 초청 세미나

제주대 민기 교수 특강… 특자도 성공 출범 위한 특례 반영 등 모색

전북도는 24일 새로운 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교수를 전문강사로 초청하고,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특례 반영 및 제도 정비 방법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기 교수의 특강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시 고려사항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 권한 이양 유형, △특별자치의 정부 간 권한 관계 구성 및 특례 작동 시스템에 대한 강의와 질문 및 토론이 이어졌다.

민 교수는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시 특별자치도 입법과정 및 고려사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우선순위 및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권한이양 유형을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과의 유형별 예시를 통해 비교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특별자치의 정부간 권한 관계 및 특례 작동시스템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검토해야 하는 모형을 제시했으며 특히, 재정사항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법정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현재까지 발굴된 특례가 전북 특별법으로 잘 반영돼 전북도민이 기대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특례 발굴과 부처 대응에 힘쓴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민 단장은“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먼저 특별자치도에 대해 깊은 논의와 고민의 시간을 갖고 특별자치도에 맞는 역량을 갖추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전부개정안 232개 특례를 발굴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부처와 국회에서 적극 활동 중에 있으며 도민들의 인지도 향상과 홍보를 위해 14개 시 · 군 순회 설명회와 함께 앞으로도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해 전문가 학회, 공동 세미나, 직능단체 설명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모 집 우석대, 전주교육대, 전북과학대, 원광대 군산대, 남원평생스피치웃음코칭과정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웃음코칭 · 리더쉽, 면접

◎모집대상: 대학, 일반인 남녀 누구나 ◎매주 1회 수업(주간, 야간)
◎등록방법: 전화접수, 팩스접수, 방문접수 가능
◎전화:063-285-6676, 010-7304-5665

※7월~8월 과정은 우석대, 원광대에서 강의함
※2학기 모집은 수시로 하며 9월 개강합니다.
※개인지도: 면접, 연설, 웅변, 시낭송, 인사말 등 상담 환영

김양옥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회장이 직접 지도함.

환 영 장수군 천천면 금강다슬기축제를 위한
제1회 천천사랑 전국 트로트가요제

금강의 상류 청정지역 장수군 천천에서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관광홍보 지역군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하는 가요제에 참가를 기원합니다.

①일시 : 2023년 8월 12일 (토) 오전 10시예선, 본선 오후 4시30분
②장소 : 장수군 천천면 춘송길 11 , 축제특설무대
③주최 : (사) 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본부
④주관 : (사) 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장수군지부
⑤참고 : 본 대회는 각 전국대회에서 대상 (1등) 수상자는 제외함
⑥접수 문의 : (063)231-6669 ,010-7304-5665 ,010-4658-8198
⑦참가자는 일만원 경비 납부요망 (접수자는 안내함)

전북회장 김양옥, 장수군지부장 김을만(장수군민) 올림